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돋보기

수필 분야 우수상

아름다운 달빛동맹

※ 고양시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문제와 변화하는 시기에 맞춘 포용적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수필 분야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을 수록합니다. 작품 내용은 <고양소식>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시민군과 진압군 양쪽에 침투해서 상대방 진영에 총격을 가해 폭동으로 발전시킨 거야.” 동네에 친분을 쌓고 있는 노인들 몇 명이 정자에 앉아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여럿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이를 듣고 있던 김 노인은 얼굴이 시뻘겍게 달아오른 채 잘못된 사실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폭도들로 몰면 안 되지. 게다가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혀지기까지 했는데.” 그간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적인 노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차별을 당해왔는데, 대놓고 출신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까지 차별하는 얘기가 나오자 분개한 것이다. 나 역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든지, 특정 지역 사람들은 죄다 빨갱이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말은 듣기 거북스러웠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편을 갈라 나누고 차별하면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놀라웠다.

나는 이걸 아니다 싶어서 노인 무리들을 향해 “거짓뉴스를 가지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 안 되지. 나이가 들수록 남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양식이 있어야 하잖나. 거 참,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라고 지적했다. 그들이 뭐라고 공시령 대면서 자리를 피하자, 김 노인이 내게 다가와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5·18 때 희생당한 사람이 있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다고!”라고 말했다. 가슴에 큰 상처를 품은 사람에게 근거 없는 말들로 아픔을 주고 차별하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 한숨이 새어나왔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도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난무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나는 유년시절 서울로 올라왔고 그 후로 꼭 서울에 살고 있다. 대구에서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때, 나는 고향 친지들이나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다. 통화를 해보면 하나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을 향한 혐오의 감정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음식점에서는 가게 입구에 대구·경북 주민 출입금지

라는 문구가 붙기도 했고,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입장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기도 했다.

단지 대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를 보듯 혐오적인 시선과 차별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고향에 있는 친지들이 생각나 씁쓸했다. 여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혐오와 멸시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증폭되어 갔다. 나중에는 대구 봉쇄 얘기가 돌았고, 사람들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구 사람들을 지역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강제로 막아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다.

내가 속한 노인 모임도 다르지 않았다. 노인들은 모임엔 ‘대구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정 지역 시민들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대구 사람들이 일부러 서울에 올라와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숙덕거리기까지 했다. 나를 향해서도 “정 노인, 혹시 밑에 있는 친척들이 자네 집으로 피신 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물을 정도였다.

그때 김 노인이 나서서 “아이 참, 5·18민주화운동 얘기도 그렇고, 코로나19 얘기도 그렇고 정말 너무들 하네. 그쪽 사람들은 대부분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잘 참고 견디고 있는데 왜 선량한 시민들을 병균 취급하는 거야?”라고 나무랐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턱대고 내 고향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던 사람들은 새로운 재료가 생기면 이를 토대로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차별과 따돌림의 대상으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사실 내 고향에서도 그간 적잖은 사람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역감정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해 특정 종교인, 성소수자, 외국인, 노숙인 등 다양한 계층이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맹목적인 차별과 혐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혐오의 감정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 간 헌신과 우정을 보여준 이른바 ‘달빛동맹’이었다.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해 병상이 부족할 때 광주에서 병상 나눔으로 대구의 환자들이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 해주었다. 광주시 의사회에서는 의사, 간호사, 방역요원들을 대구로 파견하는 등 대구 지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대구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은 빛고를 광주가 인권의 도시이자 생명의 도시로서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기 충분했다. 특히 케케묵은 지역감정을 접고 인권감수성을 높인, 매우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나이,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무의식중에 같음과 다를음을 나누고, 차별하고, 나아가서는 혐오까지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 출신지역, 경제적 지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차별과 혐오의 감정은 조금만 틈을 보여도 공기처럼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생채기를 남긴다. 스스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혐오와 기피 현상이 만연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선 같음의 범주를 넓혀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고, 똑같은 인간이며, 소중한 목숨을 가진 생명체이다. 달빛동맹처럼 차별과 혐오 대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차별 없이 소통하고 편견 없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이다. 🌈

